

2023 여름 계절 학기 UTCC 체험수기			
소속	자연과학대학	학과	정보통계학과
		성명	권사랑

우물 안 개구리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다. 이 말은 하늘의 넓이나 바다의 깊이를 우물만큼의 넓이와 깊이로만 이해한다는 뜻으로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존재가 상식적이고 폭넓은 문제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다. 이번 태국 방콕에서의 한 달은 나에게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들어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UTCC에서의 한 달에 나는 교과 수업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버디 친구들과의 교류, 유명한 관광지를 눈으로 보며 내 머릿속의 자료의 풀을 넓힐 수 있었다. 공부라는 활동이 책상 앞에서 활자를 보며 진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대화하고 새로운 것을 볼 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중에서도 버디 즉 UTCC에 다니는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내가 한국에서 배워온 것들과 아무런 의심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것들이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 나이로 23살은 곧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기에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많았었다. 대학교 졸업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도 조금은 눌러두고 현실적인 생각을 하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내 고민을 친구들에게 말하자. 한 친구는 나에게 말했다. 23살은 무언가 시작하기에 전혀 늦지 않은 나이라고 말이다. 덧붙여 무언가를 시작하고 찾는 것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주었다. 그 뒤로도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대화를 하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 더 나아가 30살이 넘어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 다시 대학에 들어온 친구도 볼 수 있었고,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학업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 속에 나도 긍정적인 자극을 받은 거 같다.

사실 아직도 내가 있는 곳이 우물 속인지 우물의 바깥인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이제는 내가 있는 곳이 우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자각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새로운 시각과 다각도의 의견을 듣고 나누는데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 거 같다. 다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르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진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준 태국에서의 한 달에게 감사할 뿐이다.